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讀書活動과 圖書館

—圖書館의 發展을 促求하면서—

千 惠 鳳

毎年 十月이 되면 例年の 行事의 하나로서 讀書週間을 맞이하여 全地域社會에 걸쳐 讀書運動을 展開한다. 어떠한 週間이든지 그러하기 쉽지만 해마다 있는 週間이라 해서 그저 形式的인 行事로서 넘겨 버리는 例가 많은 듯하다. 元來 週間을 設定하고 多彩로운 行事를 實施한다는 것은 그 行事를 通하여 週間設定의 目的과 意義를 把握하고, 現在까지의 活動에 對한 反省과 批判을 加하여, 앞날의 보람있는 發展策을 講究하는 重要한 모멘트가 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우리는 이번 讀書週間이 過去와 같이 一部 知識層만을 對象으로 하는 形式的인 行事와 運動에만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全地域社會人들의 讀書活動을 보다 더 積極的으로 勸獎하는 方向으로 나아가는 契期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唯一한 讀書施設은 圖書館이며, 그중에서도 一般大衆이 누구나 다 自由로 利用할 수 있는 公共圖書館이 代表的인 것이다. 地域社會의 文化向上과 社會教育의 普遍化는 一般大衆의 圖書施設인 이 公共圖書館을 中心으로 하여 끈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現在 世界各國에서는 圖書館事

業에 重點을 두고 一般大衆의 讀書慾과 興味를 이끄는 運營計劃을 樹立하여 高度한 文化의 發展과 創造에 온갖 힘을 다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예로서 歐美先進國의 圖書館發展相을 들수 있으며, 日本만 하더라도 이미 圖書館法이 制定公布되었고, 各地域社會單位로 圖書館이 많이 設置되어 文化國民으로서의 面貌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우리 나라의 圖書館實情은 어떠한가? 圖書館에 對한 從來의 因襲的인 社會觀念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매우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직껏 圖書館法 하나 制定되지 못한채, 大部分의 圖書館이 그內容, 設備 및 組織面에 있어서 貧弱하고 運營도 活潑치 못한 狀態에 있다. 이러한 實情에서 讀者들에게 提供하는 奉仕에 그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文化는 本來 그自體가 人間과 社會의 福祉를 向上시키는데 意義가 있는 것이며 圖書館은 그文化資源을 國內外를 莫論하고 널리 蒐集하고 整理組織하여, 一般大衆의 要求에 따라 奉仕를 하는 社會教育者의 立場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公共圖書館의 目的을 美國의 여러 圖書館人들이 提擧해서 合同으로 簡略하게 公式化하기를 『1) 讀書指導와 勸獎을

通하여 市民을 啓發하고, 市民個個人의 生活을 富裕케 하기 위하여, 圖書 및 其他 教育資料를 技術的으로 組織된 藏書의 形態로 蒐集保存하고 管理하여, 2) 信賴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을 提供해주는 센터로서 地域社會에 奉仕를 하며, 3) 兒童, 靑少年, 男子, 女子 등 모든 地域社會人이 自己自身들의 教育을 끈임없이 繼續할 수 있는 機會를 주고 督勵를 해주는 데 있다』고 定義를 내렸다. 地域社會人의 唯一한 讀書施設인 이와같은 現代圖書館의 目的을 效果的으로 達成하려면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要件에 對한 發展策이 講究되고 推進되어야 하며, 그런 然後에야 비로소 地域社會人의 讀書活動을 活潑히 展開시키고, 文化水準을 向上시킬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것이다.

(1) 各地域社會에 많은 圖書館이 設置되어야 한다.

閱壯權職員은 圖書館法을 提案함에 있어 圖書館設置의 必要性을 『오늘 날 우리 社會에 있어서는 政治 經濟의 貧困으로 因하여 一部 國民을 除外한 多大數의 勤勞大衆과 靑少年學徒들이 그날그날의 生命을 保存하기 爲한 한 조각의 빵을 求하기에 汲汲한 나머지 冊을 읽는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며 어느 먼나라 사람들의 奢侈스러운 行動이라고 밖에 느끼지 않는 것이다. 設令 讀書慾에 불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良書를 受入하기는 참으로 容易한 일은 아니다. ……이에 우리가 切實히 必要한것은 茶房이나 娛樂場이 아니요 온갖 良書를 豊富히 갖춘 現代式 施設의 圖書館인 것이다. 現代文化의 尺度는 그國家의 圖書館의 設備 및 數交로서 測定될 수 있는 것이며 中央과 各都市, 學校

軍隊 그리고 農村과 漁村에 各各 有効適切한 圖書館을 時急히 設置하여야 한다』고 言及하고 있다. 地域社會에 圖書館의 數交가 많을수록 그나라의 一般大衆의 讀書慾이 旺盛하고 따라 그네들의 文化水準이 높다는것은 歐美先進國이 如實히 立證하고 있다. 特히 우리가 본보기로 내세우고 싶은 나라는 덴마크이다. 한 사람의 無學者도 없다고 誇示할 程度로 圖書館을 通하여 成人의 社會教育이 잘되고 있는 이나라는 人口가 不過 四百餘萬밖에 안되는 歐羅巴의 最少國의 하나로서 圖書館의 歷史는 不過 三四十年 밖에 안되지만 現在는 無慮 1,295個의 公共圖書館이 都市와 農村에 設置되어 있으며, 階級에 差別없이 마치 國民學校와 같이 누구에게나 다 한결 같이 無料로 開放되어 있다. 그러나 經濟的로 貧困한 우리나라 實情으로서는 勿論 短時期에 이렇지될 수는 없다. 于先 經濟事情이 許諾하는 範圍內에서 地域社會內의 要所 卽 都市, 邑 또는 面의 中心地 單位로 餘裕있는 旣成建物을 하나 마련하고 最少限의 年間運營費로 始作하면서 年次的으로 發展시켜가면 足할줄로 생각된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初創期에 있어서는 이러한 過程을 밟아 오늘 날의 文化殿堂을 이룩한 것이다.

(2) 豊富한 圖書館資料가 備置되어야 한다.

地域社會의 市民은 各階各層으로 構成되어 있다. 따라서 圖書館資料는 어느程度 이네들의 要求에 應할수있어야만 讀書慾을 刺戟시켜주고 活動을 勸獎시킬수가 있다. 換言하면 地域社會人의 年齡, 性別, 教育水準, 職業, 宗教等의 如何를 莫論하고 모든 사람이 願하는 資料를 自由自在

로 受入하여 讀書할수있는 一種의 文化普及及所 社會教育機關이 되어야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讀書活動은 興味와 熱을 갖고 自我開拓의 方向으로 빠어나간다.

傳統적인 在來의 圖書館이 文書中心主義로 現代圖書館이 生活中心主義란 말은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그것은 傳統적인 在來의 圖書館이 主로 過去의 制限된 文獻과 諸設銀의 保管만을 爲主로하고 間或 利用者가 있다며는 一部 特殊階級에 限해서 利用의 特權을 준데 反하여 現代圖書館은 過去와 現在를 莫論하고 모든 圖書館資料(即 圖書 및 視聽覺資料등을 包含하는 非圖書資料 一切)를 널리 蒐集하여 利用의 門戶를 開放함으로써 누구나가 다 讀書生活에서 바람직한 代價를 얻도록 이바지함을 말하는 것이다. 確實히 現代圖書館은 豊富한 資料를 備置하여 보다도 많은 讀者가 보다도 많은 冊을 보다도 많이 讀書를 하도록 環境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地域社會人의 知的 啓發을 爲한 圖書館의 使命이며 또한 그 地域社會人들의 圖書館에 對한 唯一한 要求이며 渴望인 것이다.

이러한 點으로 비추어 볼때 오늘날의 우리 韓國圖書館界의 藏書實態는 果然 어떠한가?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特殊圖書館의 133個 圖書館을 全部 合해도 3,615,655冊 밖에 안되며, 地域社會人에게 直接的으로 奉仕를 提供하는 公共圖書館만을 合한다면 18個 圖書館에 總圖書數가 不過 548,446冊 밖에 안된다.^⑤ 이 公共圖書館의 總冊數는 덴마크의 一個코펜하겐 王立圖書館의 切半밖에 안되며, 日本의 國會圖書館의 9分之1 밖에 안되는 안타가

은 實情이다. 거기다가도 우리나라의 藏書內容은 거의 殆半이 젊은 世代가 解得難에 빠진 日書가 아니면 廢棄될 性質의 圖書가 적지않다. 이러한 實情에서 올바른 一般大衆의 讀書活動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曠한 事實이 아니겠는가. 藏書의 多寡(勿論質적인 問題도 있지만)는 一般大衆의 讀書活動에 가장 直接的인 影響을 끼치는 것이니 만큼 우리는 하루빨리 이에 所要되는 經費를 얻어 年次計劃으로 그內容의 充實을 기함에 火急하다.

(3) 專門職司書에 依해서 圖書館奉仕가 이루어져야한다.

圖書館은 地域社會人의 知的, 教育的, 社會的 活動을 도와주기 爲한 讀書施設로서, 技術的으로 組織된 圖書館資料를 媒介로하여, 圖書館人이 讀者에게 提供하는 奉仕를 窮極의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아무리 讀書施設이 잘되어 있고 資料가 豊富하더라도 資料의 技術的인 組織과 奉仕가 잘 안된다면 充分히 地域社會의 福利와 發展을 도와줄수가 없는. 이런 意味에서 Taubel은 그의 著書에서 이를 『技術奉仕』라고 稱하고 있으며, 圖書館이 讀者에게 高度의 奉仕를 提供하려면 이 技術奉仕의 效果的인 組織이 絕對必要하다. 그리고 잘 組織되고 適切하게 均衡이 잡힌 이 奉仕야말로 圖書館의 全體計劃의 基礎가 된다는것을 指摘하고 있다. 確實히 이 奉仕는 그 圖書館이 잘 運營되느냐 못되느냐를 測定하는 主要한 要素의 하나가 된다. 圖書館이 地域社會의 支持를 받고 一般의 理解와 信賴心을 높이기 爲해서는 그 運營이 奉仕中心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이와 같이 地域社會에 奉仕하고 貢獻하려면 圖書館 運營이 반드시 專門職司書에 依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Swiger 女史는 圖書館司書職에 對해서 言及하기를『이 圖書館司書職은 人類를 爲하여 奉仕한다는 精神이 缺어지는 安될 知的이며 또한 專門的인 職業에 屬하는 것이다. 醫師가 病者를 治療해 주고 先生이 學生을 가르켜주므로서 人類에 奉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圖書館人도 讀者가 自己教育이나 娛樂를 爲하여 要求하는 讀書資料를 그녀들에게 提供해 주므로서 人類에 奉仕하는 것이다. 이러한 奉仕에 對한 觀念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冊을 提供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奉仕를 할 수 있기 爲해서는 圖書館長이나 職員은 技術 또는 學術의 모든 方向에 걸쳐 研究하고 訓練을 받아야 한다』하고, 또 美國 圖書館協會豫算分科委員會에서는 專門職은 通常 管理者, 書誌係 및 讀者와 專門職의 性格을 併고 接觸을 必要로 하는 館員들로서 어떤 特殊한 主題와 言語에 對한 익숙한 經驗과 知識을 가진 사람을 一定한 期間內에 圖書館教育을 履修시켜 適材適所에 補職한 職員이라 規定하고 아울러 이 專門^⑧職과 一般書記職과의 限界를 明示하고 있다.

특히 現代的인 圖書館奉仕의 社會教育의인 價値는 이배를 專門職司書들이 參考業務를 通하여 直接 讀者를 指導해 주고 도와주는 데 있다. 좀 仔細히 말하자면 이들 專門的인 參考係員들은 讀者가 읽고자 願하는 資料의 利用 및 檢索上의 모든 問題에 應하여 이를 親切히 指導하고 助言해주는 것은 勿論이요 또 一方으로서 는 讀書指導 및 案內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어떤 主題別의 書誌編纂, 要約 및 解題 등

을 마련하고 언제나 讀者의 要求를 指導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圖書館의 第一線의 奉仕야말로 現代圖書館이 가장 重要視하고 있는 業務인 것이다.

이와같이 圖書館奉仕가 重要的인 구실을 하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 그 唯一한 證據로서 專門職과 書記職의 限界線없이 職員을 補職하는 例를 들 수 있다. 圖書館은 讀者를 위한 讀書施設이 니 만큼 讀者를 위해서 特別히 일할 수 있는 專門職司書를 適材適所에 配置하여 效果的인 圖書館運營을 圖謀함이 喫緊하다.

以上으로서 地域社會의 讀書生活을 向上 시키기 위한 圖書館의 基本要件을 列擧하고 아울러 우리가 이를 본받아 하루 빨리 改善發展시켜야 할 點을 強調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基本要件을 根本적으로 解決하려면 當局이 圖書館事業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積極적으로 그事業發展에 對한 對策을 講究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即 첫 段階로서 立法當局의 立法措置가 先行되어야 하며, 第段階로서는 行政當局이 그 立法措置에 따르는 事業을 年次的으로 實施해 주어야 한다. 日本의 例를 보더라도 戰後의 圖書館改革은 法令이 先驅의인 役割을 하였으며 事業은 그 法令에 따라 年次的으로 實施되어 今日와 같이 發展向上된 것이다.^⑩

原來 圖書館事業은 非營利的인 社會教育에 對한 奉仕事業이기 때문에 經濟的으로는 支出만 있고 收入이 없는 點에서 다른 事業과 다르다. 그 收入은 말하자면 地域社會의 知的 啓發인 것 뿐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圖書館法이 制定되지 않고서는

圖書館發展의 血肉이 되어 주는 豫算의 確保가 至難하다. 이 經費問題는 우리나라 經濟實情을 考慮할때 한꺼번에 充足한 豫算의 樹立을 勿論 期待할수는 없다. 韓國圖書館協會에서 發表된 最低限의 運營費 設計에 依하면 建物만 確保된다면 市單位의 圖書館은 人口十萬未滿인 境遇는 百萬圖程度, 그以上의 人口인 境遇는 二萬名 增加에 따라 三十萬圖式加算하고, 邑單位의 圖書館은 五十萬圖程度, 面單位의 圖書館은 二十萬圖程度만 있으면 先 事業을 着手할수 있다는 것이다.

도리켜 보건데 이 圖書館法草案이 閣壯植議員등에 依해서 正式으로 國會에 提案된것이 91年度였으나 不幸히도 그 年度末에 廢棄된채, 國內의 連다른 政治波動때문에 또 다시 提案도 못해보고 오늘날까지 遷延되어 왔음은 實로 遺憾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4.19 革命으로 말미암아 이제 新政府가 樹立되어 4月革命에 뒤따르는 모든 革命課業完遂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우리 全國民은 이 課業에, 地域社會의 圖書館을 中心으로하는 社會文化및 社會教育에 對한 發展策도 包含되어 積極的으로 取運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그리하여지면 圖書館事業이 活氣를 띠것이며 따라 地域社會人의 讀書活動도 活潑히 展開되고 아울러 우리 文化水準도 높아질 것이다.

(筆者東國大學校司書)

註

1. E. W. Mc Diarmid. Library needs which should be met, services to readers, in library trends, v. 3. no. 2. p. 110-111.
2. 민장식. 도서관법을 제안하고서, 세 교육, 2월호,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4292(1959) P. 57-59
3. 칼·톰센, 에드워드·시드니, 톰프킨스 共著. 公共圖書館と成人教育, 東京, 一橋書店, 1955, P. 3-28.
4. 竹林態彦. 圖書의選擇, 東京, 蘭書房, 1955, P. 13-14.
5. 韓國圖書館統計 4292(1960)
6. Maurice F. Tauber. Technical service in libra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858, p. 9.
7. E. C. Swiger. 韓國圖書館의 發展, 圖協月報, 3·4號,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p. 1-3.
8. Guy R. Lyle. The administration of the college library, 2d. ed. New York, Wilson, 1949. p. 252-253.
9. Louis Shores. Basic reference sources, Chicago, A. L. A. 1954. p. 5-17
10. 圖書館에도 書記職이 있으며 그 職能은 一般事務와 같다.
11. 全國學校圖書館協會編. 圖書館法의解說, 東京, 明治圖書出版社, 昭和29(1954) p. 22-33.